

# 현회소식

## NEWS

### 본회, 10월부터 국내 최초 SEW 중 돈 검정개시

- 충북음성에 격리조기 이유사업장 설치
- 전염성 질병 대폭 감소한 중돈 공급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격리조기이유(SEW)돈사가 10월초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회가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색리에 건축하고 있는 격리조기이유돈사의 공사 추진 현황은 9월 상순 현재 85%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어 10월경에는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국내 중돈 능력검정 사상 처음으로 격리조기이유에 의한 검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회가 건축하고 있는 격리조기이유돈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600여두의 자돈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인공 포육사 1동, 육성사 2동과 톱밥창고 1동, 사무실, 퇴비장, 관리사로 구성되어 있다.

격리조기이유(SEW)란 자돈을 생후 10~14일령(평균 체중 4kg)에 조기 이유하여 질병 오염원에서 격리된 장소에서 인공적으로 사육되어지는 양돈기술의 첨단 분야이다. 격리조기이유에 의한 효과는 어미로부터 전염되는 각종 질병에 대한 위

험을 줄일 수 있어 질병 오염이 최소화 된 돼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4년 여름 캐나다의 퀘벡주 중돈능력 검정소의 격리조기이유(SEW)방식에 의한 시험 결과 재래식 능력 검정결과와 비교하여 100kg도달일령이 21일 단축되었고 사료요구율도 0.3개선 되는 성적을 나타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지의 검정소에서는 격리조기이유를 이용한 중돈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 본회, 축산업 구조개선자금 상환 기간 연장 건의

본회는 94년 이전에 정부가 융자한 축산업 구조개선 자금의 상환조건(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을 현행 상환조건(5년거치 10년 균분상환)과 같이 소급적용 해 주도록 농림부에 지난 9월 12일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서를 통해 "그간 (양돈농가는) 정부의 축산업 구조개선 자금 지원에 힘입어 축사시설의 현대화와 규모면에서 전업농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으나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재투자과 질병 방역비의 증가 등으로 사실상 생산비가 크게 올라 융자 상환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초 경쟁력제고사업의 원 취지를 고려하여 94년 이전에 용자를 받은 양돈농가의 상환기간을 현행 상환조건처럼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소급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 본회,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 등 논의

### -농림해양수산위 보좌관 간담회서

본회를 비롯 농수축산 및 식품 관련분야 26개 단체는 지난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김태식) 의원 보좌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농수축산 관련분야의 정책반영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본회는 축산물 가공업무의 농림부 일원화와 가족분노액비살포 면적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94년 이전에 축산업 구조개선 자금을 수령한 양돈농가도 양돈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현행과 같이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연장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해양수산위 의원 보좌관들이 농정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

## 농림부, (주)부광 수출작업 가동 방안 검토

### -본회 권의에 대한 회신에서 밝혀

농림부는 돼지고기 수출업체의 부도에 따른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출육가공업체가 지급하는 규격돈 출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경남도에 긴급 지시했다. 또한 (주)부광에 돼지를 출하한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격돈 생산농가의 출하선을 타 육가공업체로 변경하는 것을 알선해 주도록 지시했다. 한편 농림부는 본회의 수출업체 부도로 인한 양돈농가 피해 방지 요청과 관련하여 (주)부광의 수출작업 가동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9월 2일 회신해 왔다.

## 본회, 해상밀수 단속에 수고하는 해양경찰청 위문

본회(회장 : 전동용)는 지난 9월 6일 축산물 밀수방지 등 구제역 차단업무에 수고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본회는 해양경찰청장(조성빈)에게 축산물 밀수단속 업무를 강화하여 구제역 등 해상 밀수를 통하여 외래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성빈 해양경찰청장은 축산물 밀수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본회는 지난 5월 임·직원 연수회때 참석지부장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구제역 방역성금을 모금하기로 하고 8월말 현재 천만원상당을 모금했다.

본회는 구제역 방역 성금을 구제역 밀수 신고 포상금 지급, 구제역 방역 관계자 위문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 본회, 신입사원 채용



조진현씨

본회는 지난 7월 21일 홍보부에 신입사원을 새로 채용하였다.

조진현씨는 동아대학교 축산학과를 내년 2월 졸업할 예정이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양돈 편

집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추용진 주임은 개인적인 사유로 지난 7월 부로 퇴사하였다.

## 도협의회, 지부 소식

### 전북도협, 9월 월례회의 개최

전북도협의회(회장 : 송정기)는 지난 9월 5일 오전 11시 익산양돈협회 사무실에서 송정기 도협의회장과 전북도내 각 지부 임원 및 총무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 충북도협, 양돈현안문제 논의

충북도협의회(회장 : 김철수)는 지난 9월 9일 12일에 청주 흥도회관에서 제8차 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회 노영한 전무와 김철수 충북도협의회장이 참석하고 충북도내 각 지부 임원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처한 분뇨처리 문제 등의 현안 문제등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다.

### 충남도협, 위생돈육생산 결의

충남도협의회(회장 : 김현병)는 지난 9월 8일 12시에 청양지부 사무실에서 본회 노영한 전무와 김현병 도협의회장, 충남도내 각 지부 전직현직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월 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돈업계에 요즘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위생돈육 생산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돈육의 생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 한영섭 김해 지부장, 부산 경남 양돈 조합장 당선



한영섭 지부장

지난 9월 8일 치뤄진 부산 경남 양돈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본회 김해지부 한영섭 지부장이 조합장에 당선 되었다. 본회 양산 서부지부 전전 지부장인 강영호씨 등이 함께 출마한 이번 조합장 선거

에서 한영섭 지부장은 투표인단의 59.5%인 364표를 얻어 247표를 얻은 강영호씨를 110여표이상 차이의 득표로 조합장에 당선 되었다. 조합장 임기는 97년 10월 14일 부터 4년간이다.

### 충주지부 사무실 이전

충주지부(지부장 : 허헌)의 주소가 충북 충주시 문화동 1164-1번지에서 봉방동 221-8번지로 변경되었으며, 전화 및 FAX 번호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養豚**

